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예능 ‘순례자들 in Spain’ 조나단 X 넉살 X 코미꼬, 라리가 직관부터 프레스존 인터뷰까지! 성덕 버라이어티 레전드 서막!

2025. 6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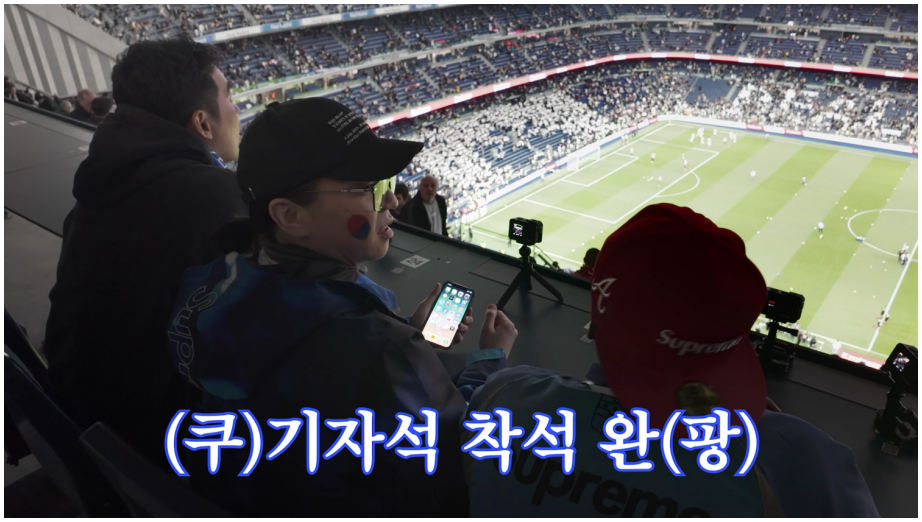
쿠팡플레이 예능 <순례자들 in Spain>이 6월 6일(금) 공개된 1, 2회를 통해 역대급 웃음과 설렘을 선사하며, ‘성덕 실현 버라이어티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. 예능 팬과 축구 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.

공항부터 마드리드까지, 현실 절친 케미 폭발!
직관보다 뜨거운 ‘찐팬’들의 덕력 대격돌!
축구보다 더 짜릿한 성덕들의 토크 폭주!
첫 회부터 레전드 탄생, 리얼 웃음 챔스 개막!

Bienvenidos a Madrid
레알 마드리드 VS 라요 바예카노

점수 내기 현황
레알 라요
넉살 4:0
코미꼬 2:3
조나단 2:1

PALCO DE HONOR
같이/ 예에에에에에에에에!!!!!!!!!!



쿠팡플레이 예능 **<순례자들 in Spain>은 축구에 진심인 세 남자 조나단, 넉살, 코미꼬의 설렘 가득한 스페인 라리가 직관기를 다룬 성덕 실현 버라이어티 예능이다.**

1회에서는 조나단과 넉살이 출국 전 티키타카로 포문을 열었다. 세 번째 멤버에 대한 의심을 품은 채 마드리드로 향한다. 이코노미 좌석의 현실적인 불편함과 넉살의 충격적인 여권 사진이 더해지며, 시작부터 폭소를 유발했다. 마침내 도착한 마드리드에서 마주한 반전의 주인공, 세 번째 멤버 코미꼬의 강렬한 등장은 첫 만남부터 혼돈과 아슬함이 공존하는 '찐예능' 케미스트리를 폭발시켰다.

부담스러움과 설렘 사이를 오가는 세 사람의 텐션은 이후 펼쳐지는 축구 경기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며,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.

현지 친구들과의 길거리 축구에서는 '꼬레아 팀 VS 에스파 팀'의 유쾌한 맞대결이 펼쳐졌다. 조나단의 요란한 플레이, 넉살의 아쉬운 미스슛, 코미꼬의 폭주까지 더해지며, 축구에 대한 세 사람의 진심이 폭발했다. 이어진 '축구 선수 이상형 월드컵'에서는 통해 예측불가의 덕질 토크가 이어졌다. 박지성, 메시, 호날두 등 전설적인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세 사람의 '축덕 본능'이 여지없이 드러났고, 각자의 선택을 두고 벌어진 갈등과 몰입은 마치 결승전을 방불케 하며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자아냈다.

2회에서는 본격적인 '성덕 미션'이 시작됐다.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모인 경기장 안팎에서 쏟아지는 긴장과 설렘 속, 현지 팬들과 인터뷰하고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활약에 환호하며 진짜 축구팬의 눈빛을 보여준다. 특히 음바페의 첫 골 장면, 비니시우스의 세리머니, 바타야의 세이브 등 명장면들이 세 사람의 리액션과 교차되며 몰입감을 높였다. 직관을 마친 후 프레스 라운지에 입장한 조나단, 넉살, 코미꼬는 쿠팡플레이를 대표해 직접 인터뷰 미션에 도전했고, 성공적으로 분량을 확보하며 유쾌한 긴장감을 선사했다. 숙소에서는 그날의 명장면을 되짚는 '성덕 토크'가 이어졌고, 인터뷰 중 만난 미모 기자와의 SNS 맞팔 에피소드, 축구 점수 내기 벌칙 등 다채로운 이야기로 예능의 진수를 보여줬다.

이처럼 축구 팬은 물론 예능 팬들의 마음까지 정조준할 쿠팡플레이 예능 <순례자들 in Spain> 3, 4회는 6월 13일 (금) 저녁 8시,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